

# Doosan Art LAB 2017

작가: 노혜리, 손현선, 우정수, 임영주, 조혜진

2017. 7. 19 ~ 8. 19

오프닝 리셉션: 2017년 7월 19일 수요일 오후 6시~8시

노혜리 퍼포먼스: 7월 19일 수요일 오후 6시 / 8월 19일 토요일 오후 4시

두산갤러리 서울은 <<두산아트랩 2017>> 전시를 7월 19일부터 8월 19일까지 개최한다. 이 전시에는 노혜리, 손현선, 우정수, 임영주, 조혜진이 참여하여 회화, 설치, 영상,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작업을 선보인다.

'두산아트랩'은 두산아트센터에서 2010년부터 진행해 온 프로그램으로 만 40세 이하의 젊은 예술가의 새로운 시도를 다양한 형태로 실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쇼케이스, 독회, 워크숍 등의 형식으로 발표된다. 2013년부터는 격년으로 두산갤러리에서의 전시로 잠재력 있는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시작했다. '두산아트랩' 전시는 선정된 작가들의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하고 지원을 이어가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. 2015년의 참여했던 작가들 중, 배윤환은 2017년 3월 두산갤러리 서울에서 개인전 <<서식지 HABITAT>>를 개최했고, 기슬기는 2017년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두산갤러리 서울에서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이다.

<<두산아트랩 2017>>에 소개하는 다섯 작가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각자의 작업세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실험해 나가고 있다. **노혜리**는 오브제를 만들고 그에 반응하는 1인극 형식의 퍼포먼스를 통해 자전적인 내용을 이야기한다. **손현선**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자신과 다른 리듬과 움직임의 대상을 오랜 관찰을 통해 그린다. **우정수**는 사회에 내재한 불안, 혼돈, 부조리한 상황들을 풍자적인 드로잉이나 대형 회화작품에 담는다. **임영주**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믿음의 구조에 대한 관심을 리서치를 토대로 회화, 영상,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험한다. **조혜진**은 일상 속 사물에서 관찰한 미적 조형성을 발견하고, 그것이 사회 안에서 생성된 배경과 역사,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조사하고 그 의미를 고민하며 조형물이나 설치를 만든다.



NEW YORK  
533 West 25th Street,  
New York, NY 10001  
T. 1-212-242-6343(6484)

SEOUL  
서울시 종로구 종로 33길 15  
두산아트센터 1층 03129  
T. 02-708-5050

RESIDENCY NY  
511 West 25th Street 7F,  
New York, NY 10001  
[www.doosangallery.com](http://www.doosangallery.com)

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